

전공의 절반 일반의 취업...상급병원 인력난 한계 봉착

'의정 갈등' 전공의 집단 사직 1년

전국 상급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지 19일로 1년이 됐다.

지난해 2월 19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조선대, 전남대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던 광주·전남 수련병원 전공의 37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동안 현장을 지켜오던 의료진의 추가 이탈까지 발생하면서 의료 붕괴 우려까지 거론되고 있다.

탄핵정국에 당장 해결책은 묘연해 환자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는 '글쎄' = 의료현장을 떠난 광주·전남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비례)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급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0'명이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국 레지던트 9222명 중 지난달 기준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광주·전남 지역 병·의원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261명(광주지역 병·의원 156명, 전남지역 병·의원 105명)으로 전국 재취업 전공의의 5%에 그쳤다.

광주·전남 상급병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없었지만, 광주·전남 종합병원에는 총 87명(광주 51명, 전남 36명)의 레지던트가 재취업했다. 병원에는 49명, 요양병원 31명, 한방병원에는 3명의 레지던트가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

광주지역 전공의들은 지난 8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이 이들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한 이후 이들의 절반이 넘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추가모집도 지원자 거의 없고 병원 적자는 갈수록 눈덩이 필수위로 응급실·수술실 다음달 췌다운 우려 속 의대생 복학도 미미

광주·전남 사직전공의들은 의정갈등이 마무리 되더라도 전공의들의 상급병원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수련병원에서 공부만 하다가 병원에서 일하던 선생님들이 이미 바깥세상으로 나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는 건 힘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복귀와 협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졌다"고 말했다.

◇병원 적자 눈덩이 = 의정갈등 장기화로 상급병원들의 적자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에서 지난해 발생한 적자만 677억 4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남대병원의 적자 228억 300만원에 비해 지난해 적자는 3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나마 의료 외 수익과 건강보험공단 환입금을 포함해 적자폭이 줄어 든 것이다. 순수 의료 수익과 비용을 따지면 적자액은 935억원에 달한다.

전국 국립대병원의 지난해 전체 손실액은 5662억 7900만원 중 11.9%에 달한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3번째로 적자가 큰 것이다. 전남대병원보다 손실 규모가 가장 큰 병원은 서울대병원(1089억 5000만원), 경북대병원(1039억 7500만원)이다.

◇3월 초 의료붕괴설 =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필수의료현장인 응급실과 수술실도 운영 한계에 달하고 있다.

18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양 병원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만료 기간은 21일까지지만 지원

자가 한자리 수에 그쳐 있는 상황이라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전남대병원 전공의 지원자는 2명(인턴)에 그쳤다. 이들도 해외 의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3월 초 응급실과 수술실 일부가 '췌다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필수진료과인 응급의학과와 마취과 전임의(펠로)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의 한 의대 교수는 "현재 외부에서 불태는 상급병원이 그나마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한계점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의료인력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백이 더 생기면 반드시 필수 의료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생 복학 '감감' =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성동구 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기준 전남대 의대 휴학생 중 2025학년도 1학기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8명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학년생(24학번)은 3명뿐이었다.

전남대 의대(의예과·의학과) 재학생은 736명이며, 이 중 94.9%인 699명이 휴학생이다. 재학생은 37명에 그쳤다.

전남대는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오는 26일 예정했던 의대 전기 학위 수여식을 취소하기도 했다.

조선대 의대의 경우 재학생 750명 중 97.3%인 730명이 휴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학생 중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사유를 밝힌 휴학생은 676명이며, 재학생은 20명밖에 없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모기 유충 방역 18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감염병예방팀 방역반원들이 중흥동의 한 정화조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구제 방역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65세 이상 장애활동지원 서비스 제한, 위헌 심판 받는다

무안군, 활동지원급여 거절에 광주지법, 헌재에 청구하기로

연령(65세 이상)을 이유로 장애활동지원 서비스를 제한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헌 여부를 심판 받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71)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를 가진 A씨는 65세를 넘겨 활동지원급여 제도를 알고 무안군에 지원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에서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는 동행은 무안군을 상대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 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65세 이전에 수급자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신청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65세 이전 수급자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11조가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위헌 제정을 결정해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농협 이사 선거 과정 금품 살포" 화순경찰, 고발장 접수 수사 나서

화순의 한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화순경찰 등에 따르면 화순 모 농협 이사(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최소 수 백만 원대의 금품이 오고 갔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A씨는 고발장에서 "선거가 시작되면서 이사회 보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한 후보는 돈을 줄때 봉투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5만원권을 등골게 말아 고무줄로 묶어서 음료박스와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수십 만원대의 돈이 오고 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농협은 지난달 27일 11명의 후보이사를 대상으로 선거를 치러 9명의 후보를 비상임이사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여객기 참사'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소환조사

전남경찰, 중대재해법 등 검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대표를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대표에게 사고 여객기 운항과 관련해 정비 규정 준수와 조종사 등 승무원 법정 휴식 보장 여부 등 안전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3시간 가량 이어졌지만, 김 대표를 피의

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공항에 통제 착륙한 뒤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과 조종사·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2명(승무원)은 기체 꼬리 쪽에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미출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치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